

南

일제 강점기 남북한 불교 모습은?

北



구례 화엄사 사자자석탑(1914년 촬영)=사자를 네 모퉁이에 기둥삼아 세워 놓은 구례 화엄사 사자자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됐다. 국보 제35호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을 상징한다. 바로 앞 석등아래에서 탑을 향해 앉아 있는 스님상은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화엄사 창건주인 연기조사의 모습이다.

남한 사찰 40여곳, 2백여장
북한 문화재 169점, 830장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1910~1940년대 남북한 옛 불교 모습이 대거 공개돼 화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펴낸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에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불교문화재 169점이 실렸다. 사진은 총 830장이다. 이와 함께 국립나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남도지역 유리건판 200여 장을 받아 8월 17일까지 열리는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전을 통해 불교 사찰 40곳을 소개했다. 대부분이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북한의 종교탄압으로 사라진 문화재여서 그 가치가 높다. 불교계의 근현대 옛 모습을 돌아보자. 노덕현 기자



금강산 장안사 전경(1912년)=신라 551년(진흥왕 12) 고구려 해랑 법사가 창건한 금강산 4대 사찰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불타고 현재 그 터만 남았다. 일주문을 지나 6전 7각 1문의 건물에 두 개 영역으로 나눠 배치된 대가람으로 김윤겸과 김홍도의 '장안사도'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터는 북한 국보 제96호로 지정됐다.



순천 승랑사 우화각 (1928년 촬영)

육당 최남선은 저작 심순례에서 승광사를 '조선불교의 완성지'라고 평가했다. 승광사에서 가장 절경으로 꼽히는 것이 대웅보전 앞의 우화각이 보이는 풍경이다. 우화각은 일주문을 들어서 대웅보전 정내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다리 위에 놓인 집으로 '깃털과 같이 몸이 가벼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주 서성문 석등 (1930년대 촬영)

원래 나주읍성 내에 있던 것을 1929년 경복궁으로 옮겨 창고에 보관했으며, 2001년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세워졌다. 지금은 용산 중앙박물관 앞에 있다. 나주 읍성에는 보물 49호 '동문밖 당간지주'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절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암 도갑사 도선수미비 (1934년 촬영)

도갑사 도선수미비는 신라 도선 국사와 도갑사를 중창한 수미왕사를 추모하는 비로 1653년에 완성됐다. 귀부(龜趺), 비신(碑身), 이수(碑蓋)가 구비된 석비로 도갑사의 부도전(淨耀田) 부근에 건립된 보호각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 보물 제 1395호로 지정됐다.



화순 승룡사 대웅전 (1932년 촬영)

대웅전으로서 희귀한 3층 전각으로 목조탑파(木造塔婆)형식의 희귀한 건물이다.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돌 밖에 없는 목탑 양식으로 1934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보물 163호였지만 소실 이후 복원으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유리건판 사진에서는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황주 성불사 극락전 (1909년 촬영)

성불사는 황해도 의주군 황주 정방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898년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 황해도의 중심사찰로 조선 시대에는 자은종 중심사찰이자, 수륙제가 열리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31본산 제도 하에 황해도 본사로 31개 말사를 관리했다. 현재 극락전을 비롯한 6층 건물과 오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고려말 건립됐다. 한국전쟁 당시 불타으나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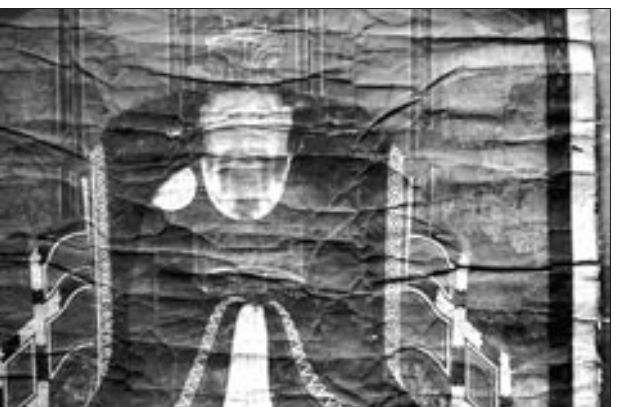
은율 석조삼존불상 (1916년 촬영)

은율 석조삼존불상은 처음 공개된 것으로 1916년과 1929년 두차례 조사됐다. 촬영 당시 경작지 안에 방치됐다. 머리에는 꽃무늬가 새겨진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썼다. 이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유행한 형식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초인 10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유점사 백의관음보살입상 (1912년 촬영)

유점사 백의관음보살입상은 1912년 촬영된 것으로 높이 42.8cm에 대좌, 상, 지물(持物)이 별도로 만들어져 결합된 것이다. 독일신부 안드레 에카르트가 1929년 발간한 <조선미술사>에도 실려있다. 현재는 소실됐으며 13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사 공민왕 진영 (1916년 촬영)

화장사 공민왕 진영은 조선시대 화장사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귀중한 유물로 꼽혔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다. 원유관을 쓰고 왕의 복식을 착용한 모습은 한 불화양식이다. 시왕도의 시왕과 여러 도상적 유사점을 볼 수 있다. 이 진영은 별도의 전각에 보관됐는데, 고려 유민들이 화장사에서 제사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화합의 기도
-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염불
- 10. 마음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빈손으로 왔다가
- 13. 사람을 쓸 때는
-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오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바르면
- 19. 향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눈을 찡뜨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역찬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정진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청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발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길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약장
- 53. 관세음보살 2약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열분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뒤틀림) 8cm]

